

경계 단계 대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의
료기관·약국 의무

입국관리

입국 전후 검사 해제

⇒

검사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지속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중대본

해체
(관계부처 합동회의)

위기시

일부 시설 한시 재도입

입국 전/후 검사 재도입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변이 감시 지속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 한시 운영 이후
호흡기감시체계와 통합 추진

치료제
적극 투약

처방률 제고 노력 지속

감염취약시설
보호

전담대응팀 운영 지속,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및 모의훈련
현장 지원

3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분야	현행	당초(2단계 조치 시)	변경(2단계 조치 시)	시행일
감시	전수 감시	표본감시 *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 (*23.12월까지 한시 추진) *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감염병 등급 조정시

동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의료 대응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유지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지원 체계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유지
감사·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주단위 발표로 전환
재난대응체계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제로 전환

분야	현행	당초 (심각→경계)	변경 (심각→경계)	시행일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격리 기간 단축 (7일 → 5일)	▶5일 권고 전환	6.1. (경계 하향시)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유지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시설보호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 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 식금지(방역수칙준수)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 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 식허용(방역수칙준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당초 계획 유지	